

茶山 丁若鏞의 文學과 文學觀

—그 理論과 實際—

金 容 稷

- | | |
|----------------|-----------------------|
| 一. 머릿말—學論의 事由 | 1. 小說의 排除와 그 問題點 |
| 二. 茶山의 文學觀(1) | 2. 種族 또는 傳統에 대한 인식 |
| 1. 反詞章, 內容優先主義 | 四. 茶山文學의 實際 |
| 2. 經世致用을 향한 경사 | 1. 庶民의 편에 선 文學 |
| 三. 茶山의 文學觀(2) | 2. 非理의 摘發, 暴露, 告發의 文學 |

一. 머릿말—學論의 事由

茶山이 태어나서 살다간 시대는 朝鮮末葉에 해당되는 18세기 말과 19세기 초두였다. 그 무렵 우리 사회에는 퇴영과 非理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걸 효과적으로 타개하려는 열정이나 의지 역시 당시 우리 주변의 지도층에게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그를 총애한 正祖를 가까이 되신 얼마 동안은 제외하면 茶山은 그 생애의 대부분을 講所에서 보냈다. 그것은 에누리 없이 말해 불우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외곶으로 우리 사회의 비리를 파헤치고 그 지양, 극복을 기도해 말지 않았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實事求是를 지향한 분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도 우뚝 솟은 봉우리로 손꼽히는 분이 茶山이다. 이제까지 그의 발자취는 대개 정치, 사회, 경제사 등의 테두리에서 거론되어 왔다.⁽¹⁾ 그리고 그 대부분은 實學者로서 그가 남긴 꿈과 의지, 기도와 실재를 검토, 고찰한데 그쳤다. 그리하여 좀더 차분한 입장에서 그 인간과 문학, 또는 작품과 그 이론이 추적된 예는 극히 최근까지 아주 드물었다.⁽²⁾

(1) 이 유형에 속하는 업적은 鄭寅普, 安在鴻, 白樂濬, 玄相允 등에 의해 작성되었다. 그리고 그 후 洪以燮, 《丁若鏞의 政治經濟思想研究》로 본격화되고 종합화된 것이다.

(2) 茶山의 문학관과 그의 작품을 다룬 예는 70년대에 들어서서 나타났다. 참고로 그 이름들을 들어보면, 金智勇, <茶山詩文選解說> 《茶山詩文選》(大洋書籍, 1973), 宋載邵, <茶山詩의 對立的 構造> 《創作과 批評》(47) (1978. 3), 同上, <茶山詩의 現實性> 《世界의 文學》(7) (1978. 3), 金相弘, <茶山의 文學思想> 《東洋學》(10) (東洋學研究所, 1980) 등이다.

물론 詩의 제작자로서 또는 文人으로서 茶山에 대한 검토, 분석이 低迷에 그친 데는 몇 가지 사정이 있었다. 솔직히 우리 주변에서 한국학 또는 한국 문학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역사는 아직 日淺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는 한국문학의 主流를 국어국자에 의해 표기된 것이라고 믿어 왔다. 그런데 茶山の 여러 작품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漢文文學에 속했다. 이와 같은 통념에서 빚어진 이질감이 茶山の 문학을 활발하게 논의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을 공산은 아주 크다. 다음 茶山 자신도 文學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물론 그는 士林階層 出身으로 독실한 유학의 신봉자였다.⁽³⁾ 유학을 茶山은 聖學 내지 聖道라고 했고, 그의 일체 행동과 철학을 그쪽에서 이끌어냈다. 그런데 그는 문학과 문장이 그와 같은 유학과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것인양 생각했다. 이 경우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이 그가 문학을 지망하는 후배에게 준 충고다. 茶山은 문학과 문장이 聖學을 좀먹는 썸이라고 규정했다.⁽⁴⁾ 이와 같은 文學 格下 역시 문인으로서 그의 논의를 低迷에 그치게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茶山은 이외에도 많은 양의 詩文을 남긴 분이다. 그가 남긴 詩와 賦는 그 숫자가 즐잡아도 3,000수에 가깝다. 아울러 그는 많은 숫자의 수상을 가지며 다섯 편의 전기류도 남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쓴 논설 가운데는 아주 독특한 문학관을 피력한 것도 있다. 이들에 대한 효과적 이해, 파악은 茶山の 立像을 올바로 그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다음 茶山の 경우 그 표현매체가 한문인 점은 그의 문학을 거론하는데 근본적인 난점이 되지는 않는다. 다음에 자세히 드러나겠지만 많은 작품에서 그는 당시 우리 사회와 종족의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시켰다. 한마디로 거기에 수용된 소재,

(3) 茶山은 물론 曠菴 李藥의 영향을 입고 天主教에 입문 내지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것이 곧 茶山の 유학에 대한 신앙을 삭감시키지는 않았다. 이 경우 우리가 들 수 있는 좋은 보기가 그의 묘지명의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從李藥 游聞西教 見西書丁未以後四五年 頗傾心焉 辛亥以來 邦禁嚴遂絕意 乙卯夏 蘇州人周文謨來 邦內洵洵 出補金井察訪受 旨誘戢 辛酉春臺臣閔命赫等以西教事發啓 與李家煥李承薰等下獄 既而二兄若全若鍾 皆被逮一死二生 諸大臣議白放 唯徐龍輔執不可 鏞配長鬐縣(중략) 鏞在謫十有八年 專心經典所著 詩書禮樂易春秋及四書諸說 共二百三十卷 精研妙悟, 多得古聖人本旨」——自撰墓誌銘 壙中本, 《與猶堂全書》제一집 十六권, 1-2장.

이 논문에 쓰인 《與猶堂全書》는 景仁文化社가 복사한 1970년도 판이다. 이하 이 책은 《與》로 표시하며, 集, 卷, 張표시는 一, 二, 3의 순서대로 적고 면은 밝히지 않겠다.

(4) 「世所謂文章之學 乃聖道之蠹蟹 必不可相容 然迂而下之」——爲李人榮贈言, 《與》一, 十七, 45.

의식, 가락 등이 아주 질게 우리 자신의 입김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상 국어국자에 의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茶山의 詩文을 한국문학의 유산으로 거론하는데 주저해온 현상도 지양, 극복되어야겠다. 한마디로 茶山의 文學과 文學觀은 그 나름의 분석,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류의 일을 피하게 된 얼마간의 이유다.

二. 茶山의 文學觀(1)

茶山의 글들은 모두가 개혁의 의지로 가득차 있다. 그리고 개혁에 앞서 그가 보고 들은 바 우리 사회의 병폐를 척결, 비판하는데도 가차가 없었다. 그가 남긴 詩文들 역시 그 예외는 아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남긴 작품들 속에는 무시로 사회의 비리에 대한 비판과 공격의 눈길이 번득인다. 이제 이와같은 사실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자칫 茶山을 반체제, 유학 자체에 대한 반대논자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그 실에 있어서 그는 독실한 유학자였다. 그리하여 그의 개혁의지와 비판 역시 유학의 교리를 시인, 현양하려는 테두리 안에서 펼쳐진 것이다. 이런 경우의 우리에게 좋은 보기가 되는 게 《牧民心書》다. 《牧民心書》가 茶山의 정치를 광정한다든가 사회개혁의 의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담은 저작임은 널리 알려진 대로다. 그런데 茶山은 거기서 당시 일선 행정의 빚어낸 비리의 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들추어 내었다.

정부 곡식의 대여, 수거에서 병폐가 일어나는 까닭은 법의 근본이 어지러운데 있다. 그 근본이 이미 어지러우니, 그 말단이 어찌 다스려질 수 있겠는가. 상사가 그걸 빼어들어서 창사질 크게 하니 수령이 법을 어기는 것은 다시 일컬을 것도 없는 일이 된다. 윗물이 이미 흐리니 아랫물이 맑기를 바라는 것부터가 무리다. 아전들의 협잡은 그 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게 없다. (還上之所以弊 其法本亂也 本之既亂 何以末治 上司質遷 大開商販之門 守臣犯法 不足言也 (중략) 上流既濁 下流難清 胥吏作奸 無法不具 神姦鬼猾 無以昭察)⁽⁵⁾

茶山을 유학 비판, 반체제주의자로 보려는 생각은 이런 그의 사회비판을 유교와 무관한 것으로 보는 해석의 결과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엉뚱한 것이다. 정작 《牧民心書》라는 책 제목에서 주제어에 해당하는 〈牧民〉이란 단어부터가 聖賢의 뜻을 담은 것이라고 茶山은 밝혔다. 그런데 여기서

(5) 《與》五, 十六, 14-18.

그가 말한 聖賢들이란 바로 堯舜과 文王, 孟子등을 가리키는 것이다.⁽⁶⁾ 결국 茶山은 그가 산 시대에 빛어진 유학의 병폐를 시정하려는 쪽이었다. 그리고 더욱 주목할 것은 그가 모든 생각의 근거를 유학에서 이끌어 내고 있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茶山의 학문이 지닌 바 성격을 洙泗學, 또는 先秦儒學으로 규정하는 태도는 합리적이며 타당하다.⁽⁷⁾ 또한 문학에 대한 茶山의 생각도 그 예외는 아니다. 일찍 그는 문학, 또는 문장 가운데 훌륭한 것을 손꼽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므로 천지간에 있는 문장 가운데 가장 정치 교묘한 것은 周易이며 부드러운 면서도 격결한 것은 詩經이며 전아하고도 치밀한 것은 書經이며, 자세하나 어지럽지 않은 것은 禮記이며, 조문이 명백하여 뒤섞을 수 없는 것은 周禮이며 크고 기이하여 호흡에 거침이 없으며 어떤 힘으로도 꺾을 수 없는 것이 春秋左傳이며 슬기롭고 통달하여 티끌이 없는 것은 論語이며, 성정과 도의 본체를 참으로 알아서 조리 있게 분석한 것은 孟子이며 심각하고 오묘한 것은 老子이다. (故文章之在宇宙之間其精微巧妙者易 溫柔激切者詩 典雅縝密者書 詳細而不可亂者禮 條鬯而不可糲者周禮 瓌奇吐欲而不可屈者春秋左氏傳 睿聖無瑕者論語 眞知性道之體 而劈析枝經者孟子 刻覈深窈者老子)⁽⁸⁾

이런 귀절을 통해서도 文學에 대한 茶山의 생각은 그 단면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여기서 그가 든 훌륭한 文章의 보기 가운데 先秦儒學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것은 老子 한 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의 文學에 대한 생각의 성격을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이 洙泗學派의 흐름을 그대로 잇고 있다는 점이다.

1. 反詞章, 內容優先主義

독실한 유학자로서 茶山은 모든 행동에 유교의 이념을 선행시켰다. 그리고 그런 정신의 단면은 그의 문학관에도 착실하게 반영되었다. 그는 유학적

(6) 昔舜紹堯咨 十有二牧 俾之牧民 文王立政 乃立司牧 以爲牧 夫孟子之平陸 以芻牧 喻牧民 養民之謂牧者 聖賢之遺義也——牧民心書自序, 《與》五, 十六, 1.

(7)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李乙浩교수의 《丁茶山의 生涯와 思想》(博英社, 1979)에서 이루어졌다. 李교수는 여기서 茶山이 謫所에서까지 儒學 또는 經學에 힘쓴 모습을 그의 墓誌銘을 인용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내가 康津 바닷가로 이미 귀양 왔으니 유년 시절부터 學問에 뜻을 둔지도 20년이 되었으나 세상 일에 깊이 빠져 다시금 先王의 道를 모르고 지냈다. 이제 틈을 얻었으니 드디어 기꺼이 스스로 이를 경하롭게 생각하여 六經四書를 꺼내들고 깊이 연구하였다.」 위에 든 책, 32면 참조.

(8) 五學論 三, 《與》一, 十一, 21.

인 이념 또는 행동철학을 신봉하는 나머지 문학 또는 문장은 그걸 전달, 표현하는 연모에 그치는 것으로 보았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철저한 偏內容主義者였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좋은 문장, 훌륭한 작품을 쓰는 길은 학식을 넓히고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의미했다. 다음은 문학에 뜻을 둔 후진에게 그가 준 말이다.

대저 문장이란 무엇인가? 학식이 안으로 쌓인 다음 밖으로 문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마치 고량진미가 창자 안에서 퍼지면 기름끼가 피부에 나타나며 맛좋은 술이 입안에 들어가면 붉은 빛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문장을 어찌 밖으로부터 가져올 것인가? 화평하고 치우치지 않은 채 올바른 덕으로 마음을 닦고 효성과 우애로 성격을 단련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정성을 외곶으로 지키며 떳떳하게 살아 변함이 없고, 쉬임없이 도에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 행동거지를 四書에 의거하고 六經으로 지식을 넓히며 많은 역사책으로 고금의 변천을 통달하며 예악형정의 문헌과 법률, 제도의 고전들이 가슴 속에 그득히 쌓인 다음 외계의 사물과 접촉하며 사회의 시비나 이해에 부딪치게 되면 곧 자기의 마음 속에 쌓인 것이 넘치고 응축음쳐서 한번 밖으로 퍼져 나가 천하만세의 광채로 될 것이니, 이렇게 막아 둘래야 막아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한번 자기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을 터뜨려 놓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일컬어 文章이라 한다. (夫文章何物 學識之積於中而文章之發於外也 猶膏粱之飽於腸而光澤發於膚革也 猶酒醪之灌於肚而紅潮發於顏面也 惡可以襲而取之乎 養心以和中之德 繕性以孝友之行 敬以持之 誠以貫之 庸以不變 勉勉望道 以四書居吾之身 以六經廣吾之識 以諸史達古今之變 禮樂刑政之具 典章法度之故 森羅旬次之中而與物相遇 與事相值 與是非相觸 與利害相形 即吾之所蓄積 壹鬱於中者 洋溢動盪 思欲一出於世 爲天下萬世之觀 而其勢有弗能以遏之 則我不得不一吐其所欲出 而人之見之者相謂曰 文章 斯之謂 文章)⁽⁹⁾

대개 우리가 말하는 내용우선주의란 형식을 뒤로 돌리고 내용에 중점을 두는 경우를 뜻한다. 그러나 茶山의 文學觀은 그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장 수련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문장과 문학은 인격 도야, 올바른 마음 가짐과 행동으로 제 나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게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글이란 풀이나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 그것을 심을 때에는 뿌리를 묻어 주고 줄기를 바로 세워 주어야 한다. 얼마 지나면 나무에 물이 올라 가지가 팽으며 잎이 돋아나고 그런 다음에야 꽃이 핀다. 그러므로 꽃은 밖으로부터 빌려 올 수 없다. 정성스러운 뜻과 바른 마음으로 그 뿌리를 북돋우며 행실을 도타이하고 몸을 닦아 그 줄기를 바로 세우며 경전을 깊이 깨

(9) 爲李仁榮贈言, 《與》一, 十七, 45.

치고 예법을 연구하여 그 견문을 넓히고 기예를 익히어 그 가지가 뻗어나게 하고
 잎이 돋아 오르도록 해야 한다. (人之有文章 猶草木之有榮華耳 種樹之人 方其種之
 也 培其根 安其幹 已矣 既而行其津液 剪其條葉而榮華 於是乎發焉 榮華不可以襲取
 之也 誠意正心 以培其根 篤行修身 以安其幹 窮經研禮 以行其津液 博聞游藝 以剪其
 條葉)⁽¹⁰⁾

茶山의 이와같은 생각은 기법을 경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해 심한
 적의를 지닌 쪽으로 나타났다. 그는 기법을 익히는 일을 부질없는 지엽말단
 의 손재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한때 이름을 드높이
 는 걸 貶下해 말지 않았다. 茶山은 그것을 광대가 무대에 올라 재주를 피우
 는 것일 뿐이라고 못박았던 것이다.⁽¹¹⁾ 뿐만 아니라 그는 동일한 생각에서
 중국의 몇몇 이름 높은 문인, 명문장가까지를 비판, 격하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비록 韓愈와 柳宗元이 문장중흥의 조상이라고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이
 중흥시킨 文章은 먼저 그 내적인 충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외적인 형식
 을 추구한 데 그친 것이다. 그러고도 스스로 대가로 자처했으나 이것이 어찌 옛 문
 장과 같을 수 있겠는가. 韓愈, 柳宗元, 歐陽修, 蘇軾 등이 지은 이른바 序記 등 많
 은 작품들은 모두가 걸만 화려하고 알맹이가 없으며 기이하되 바르지 못하다. (韓愈
 柳宗元 雖稱中興之祖 而本之則亡如之何其興之也 文章不自內發 迺皆外襲 以自雄 斯
 豈古所謂文章者哉 韓柳歐蘇 其所謂序記諸文 率皆華而無實 奇而不正)⁽¹²⁾

새삼스레 밝힐 것도 없이 韓愈와 柳宗元, 歐陽修, 蘇軾 등은 중국에서 그
 위치가 절대적인 文人들이다. 그들은 오래 人口에 회자된 글을 남긴 文人들
 로 그 이름은 전혀 他的 추종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이다. 물론 그들의 글을
 유학의 경전에 앞서 손꼽는 예는 많지 못했다. 그러나 단순히 알맹이가 없
 다는 이유로 그들의 글을 비판, 폄하시킨 예도 茶山 이전에는 별로 없었다.
 이것으로 우리는 茶山의 文學觀이 지니는 바 反詞章, 內容優先主義의 정도
 를 짐작할 수 있는 셈이다.

2. 經世致用을 향한 경사

앞에서 우리는 茶山이 偏內容主義者임을 알게 되었다. 그와 아울러 그의

(10) 爲陽德人邊知意贈言, 《與》一, 十七, 46.

(11) 凡士君子之起跡 草野者最好 是時君不識 何狀文字進呈 唯論策等忠鯁劉功者
 无害 若彫蟲篆刻之技 雖膾炙一世 是唯俳優之登場演戲者耳——示學淵家誠,
 《與》一, 十八, 4-5.

(12) 五學論 三, 《與》一, 十一, 21.

행동철학이 철저히 유학의 테두리에 든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이것이 곧 그의 文學觀이 그 이전의 保守士林들 것과 동일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뒤무리되지만 그는 實學派에 속한 분이다. 특히 그는 實學派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잠깐 참고로 밝히면 그의 實學은 星湖에 대한 사숙에서 비롯되었다.⁽¹³⁾ 그러나 그와 동시에 茶山은 燕巖學派가 지닌 利用厚生의 단면도 그 나름대로 수용한 분이다. 이제 그 사이의 사정은 그가 보인 교량 가설, 성곽 축조 실적을 통해 넉넉히 입증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星湖學派의 經世致用論과 燕巖學派의 利用厚生論을 포괄, 종합한 위치에 선다. 그리고 그의 文學觀 역시 이와 같은 행동철학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었다. 그는 우선 문학의 길이 經世澤民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詩가 아니며 시대를 아파하지 않고 잡된 것에 의분을 느끼지 않는 것은 詩가 아니다. 참을 그리지 않고 거짓을 풍자하지 않는다면 착한 일을 권장하지 않고 악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詩가 아니다. 그러므로 뜻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학식이 순정하지 못하며 큰 길을 알지 못하고 임금의 잘못을 바로 잡아 백성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없는 자는 능히 詩를 짓지 못한다. (不愛君憂國非詩也 不傷時憤俗非詩也 非有美刺勸懲之義非詩也 故志不立 學不醇 不聞大道 不能有致君澤民之心者 不能作詩)⁽¹⁴⁾

이것은 그가 아들 大淵에게 준 편지의 일절이다. 이 부분에 앞서 茶山은 杜甫를 孔子에 대비시켜 말했다. 그리고 그 까닭을 그는 《詩經》의 정신을 잘 이어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洙泗學派에 속하는 茶山の 모습과 만난다. 그와 아울러 그의 文學觀이 일종의 도구론에 속할 경우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한편 다같은 도구론 중에도 茶山の 경우는 더욱 짙게 문학 경시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요즘 몇몇 젊은이들은 元과 明 시대의 경망하고 깊이가 없는 문인들의 시고 차며

(13) 이와 같은 사실을 단적으로 들어내는 것이 茶山 스스로가 그의 학문의 과정을 적은 부분에 나온다. 「鏞幼而穎悟 頗知文字 九歲有母之喪 十歲始督課 五年之間先考閒居不仕 鏞得以是讀經史古文頗勤 (중략) 先考復仕爲戶曹佐郎 僑居京內 時李公家煥 以文學聲振一世 姊夫李承薰 又飭躬勵志 皆祖述星湖李先生灑之學 鏞得見其遺書 欣然而學問爲意」——自撰墓誌銘, 《與》一, 十六, 3.

(14) 이에 앞서 杜甫의 글을 기린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後世詩律 當以杜工部 爲孔子 蓋其詩之所以冠冕百家者 以得三百篇遺意也 三百篇者 皆忠臣孝子烈婦良友惻怛忠厚之發」——寄淵兒, 《與》一, 二十一, 9.

뽕죽하며 부스러진 문체를 모방하여 질귀나 단율을 지으면서 속으로는 저 혼자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작가인 것처럼 뽐낸다. 그들은 무턱대고 거들먹거릴 뿐 아니라 옛과 지금의 것은 모조리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쓸어 버릴려고 한다. 나는 이들을 항상 안타깝게 여긴다. 글을 지으려면 반드시 경서를 먼저 읽어 학식의 밑바탕을 쌓아 올린 뒤에 앞서 이루어진 역사책을 읽어 그 득실과 혼란의 근원을 다스린 이치를 깨쳐야 한다. 또한 실용적인 학문도 연구하여, 옛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글도 읽어야 한다. 이리하여 자기 마음이 언제나 백성들에게 혜택을 끼치며 만물을 보호육성하려는 사상을 지녀야만 바야흐로 글을 읽는 학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된 연후에야 비간 아침과 달밝은 밤, 질은 녹음과 이슬비 내리는 때를 맞이하여 가슴 속에 서린 감흥이 솟아 올라 자연스럽게 읊조려지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제멋에 겨운 선율이 맑게 퍼지는 것, 이것이 곧 시가가 제자리를 얻은 모습인 것이다. (近一二少年 取元明間輕佻妄客酸寒尖碎之詞 摹擬爲絕句短律 竊竊然自負其爲超世文章 傲視貶薄 欲掃蕩今古 吾嘗愍之 必先以經學立著基址 然後涉獵前史 知其得失理亂之源 又須留心實用之學 樂觀古人經濟文字 此心常存澤萬民育萬物底意思 然後方做得讀書君子 如是然後或遇煙朝月夕濃陰小雨 勃然意觸 飄然思至 自然而詠 自然而成 天籟瀏然 此是詩家活潑門地 勿以我迂也)⁽¹⁵⁾

여기 나타나는 바와 같이 茶山의 견해는 일종의 文學手段論에 해당된다. 그런데 수단 내지 도구론에는 대충 두 가지가 생각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문학이 보다 큰 목표나 목적을 위해 힘이 되어 준다는 견해다. 이것도 물론 종속론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견해에는 文學의 힘을 인정하는 속셈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유형에 속하는 또 다른 견해가 餘技說이다. 여기서 餘技란 물론 修己와 經世에 쓰고 나머지 힘과 시간을 이용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문학은 物外閒人의 吟風弄月이 될 뿐이다. 茶山은 크게 文學을 經世致用의 방편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걸 위해 文學이 직접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런 점으로 보아 그는 철저히 文學格下論者가 되는 것이다. 실제 그는 어느 자리에서도 文學의 독자적 존재의의를 주장하고 나서지 않았다.

三. 茶山의 文學觀(2)

다같이 文學의 테두리에 드는 경우에도 茶山은 小說類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가 그 효용을 인정한 것은 詩와 논설이었다. 茶山이 논설을 인정한 것은 그 연유가 쉽사리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그가 뜻하는 바 經世致

(15) 寄二兒, 壬戌十二月二十二日 康津謫中, 《與》一, 二十一, 4.

用의 철학을 펴기 위해서 논설은 적지않게 효과적인 양식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茶山의 詩에 대한 정신적 경사 현상은 다시 한번 그가 先秦儒學의 신봉자임을 말해 준다. 새삼스레 밝힐 것도 없이 先秦儒學의 주인공은 孔子였고 그는 또한 詩의 옹호론자였다. 孔子의 언행록인 《論語》에는 詩가 마음을 흥겹게 해 주며 관찰력을 기르고 인간관계를 가리키며, 어머니와 임금을 섬기는 법, 나아가 새와 짐승 푸나무의 이름까지를 가르쳐 준다고 말한 부분이 있다.⁽¹⁶⁾ 또한 《詩經》의 大序에는 詩를 곧바로 효용, 기능면에서 규정한 게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정치의 득실을 헤아리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며 귀신을 감동시키는 데 詩만한 것이 없다. 先王들이 이것으로 부부관계를 맺어내고 효도와 공경을 이루게 했으며 인간관계를 도타이 하고 백성들을 아름답게 교화하고 풍속을 개선하는데 詩가 가장 효과적이다. (故正得失 動天地 感鬼神 莫近於詩 先王以是經夫婦 成孝敬 厚人倫 美教化 移風俗)⁽¹⁷⁾

여기 나타나는 바와 같이 茶山의 詩에 대한 정신적 경사 현상은 그가 착실한 유학자임을 확인케 해 줄 뿐이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서 그는 좀 특징적인 단면을 들어낸다. 그것이 그가 우리 자신의 입장을 살린, 우리 詩를 선언하고 나선 점이다.

1. 小說의 排除와 그 問題點

茶山의 소설 배제태도는 생각보다 강경한 쪽이다. 그는 〈文體策〉에서 인간이 빚어내는 재앙 가운데 소설의 폐해가 가장 큰 것이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禁輸와 焚書까지를 건의했다. 매우 격렬한 문학의 규제, 탄압이 되는 셈이다. 이와같이 茶山이 小說의 배제를 위해서 초강경책을 건의한 이면에는 물론 거기에 나름의 까닭이 있었다. 그는 그이유로 ① 음탕한 말과 더러운 이야기로 사람의 마음을 태탕하게 만들고 ② 간사한 감정과 요

(16) 陽貨편, 9절, 참고로 원문을 제시하면, 「小子, 何莫學夫詩,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17) J.Y. Liu, *Chinese Theories of Literature*(Univ. of Chicago press, 1975) pp.111-112, 李章佑역, 《中國文學의 理論》(汎學圖書, 1978). p.215에서 재인용. Therefore, nothing approaches the Book of poetry in maintaining correct standards for success of failure [in government], in Moving Heaven and Earth, and in appealing to spirits and gods. The Former Kings used it to make permanent [the tie between] husband and wife, to perfect filial reverence, to deepen human relationships, to beautify moral instruction, and to improve social customs.

사한 자취로 사람들의 지식을 어지럽히며 ③ 터무니 없고 기괴한 이야기로 사람들의 교기를 기르며 ④ 누덕어리고 조각난 글로 사람들의 장기를 없앤다는 것 등을 들었다.⁽¹⁸⁾ 또한 茶山은 實學者답게 소설을 업으로 삼을 때 빚어지는 폐해를 계층별로 들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소설에 빠지는 경우子弟들은 經史의 공부를 게을리 하고, 재상은 조정의 정사를 등한히 하며 부녀자들이 길삼하는 것을 폐한다는 것이다.⁽¹⁹⁾ 그리하여 그는 문학과 문장에 뜻을 둔 후진에게도 소설을 가까이 말도록 경계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羅貫中을 조상으로 여기고 施耐庵과 金聖歎을 어버이로 받들어 지절대는 원숭이와 앵무새의 혀바닥처럼 이리저리 놀려서 그 음란하고 괴상스러운 말들을 꾸며 놓고 저혼자 기뻐하면서 즐거워한다. 이래서야 어찌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以羅貫中爲祧 以施耐庵金聖歎爲昭穆 喋喋猩鸚之舌 左翻右弄 以自文其淫媠機險之辭. 而竊竊然自娛自樂者 惡足以爲文章)⁽²⁰⁾

茶山의 소설 부정론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남긴다. 우선 그 스스로가 稗官雜記를 강력히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에 있어서 소설에 준하는 작품을 남겼다. 張天慵傳, 蒙叟傳, 竹帶先生傳, 曹神仙傳, 鄭孝子傳 등이 그들이다. 참고로 밝히면 이들은 모두가 方外人에 속하는 인물을 다룬 전기체의 글이다. 그리고 茶山은 그들의 파격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썼던 것이다.⁽²¹⁾ 그리하여 이상 작품들은 소박한 대로 소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게 된다. 이런 사실을 그의 소설 배제론에 비추어 보면 그 사이

(18) 茶山은 여기서 우리에게 끼치는 폐해를 天災, 地災, 人災로 나누고 그 가운데 稗官雜書의 폐가 人災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臣以爲慧孛虹靄謂之天災 旱澇崩渴謂之地災 稗官雜書 是人災之大者也 淫詞醜話駭蕩人之心靈 邪情魅跡迷惑人之智識 荒誕怪詭之談以驕人之驕氣 靡曼破碎之文章以消人之壯氣 子弟業此而芭籬經史之工 宰相業此而弁髦廟堂之事 婦女業此而織紵組紃之功遂廢矣」——文體策, 己酉十一月 親試, 《與》一, 八, 36.

(19) 위의 책 같은 장.

(20) 爲李仁榮贈言, 《與》一, 十七, 46.

(21) 《與》一, 十七, 32-33. 참고로 그 가운데서 曹神仙傳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曹神仙者 賣書之牙僧也 紫髯而善諧目 閃閃有神 凡九流百家之書 其門目義例 無不領略 纒纒然 譚論如博雅君子 而性多慾 凡孤兒寡妻之家 所藏書帙 輒以輕買取之 及其賣之也 倍讎焉 故賣書者多短之 又諱其家居人無知者 或云在南山之側 石假山洞亦不明也 乾隆丙申間 余游京師 始見曹神仙 顏髮如四五十者 至嘉慶庚申間 其貌不小衰一如 丙申時近有人云 道光庚辰間 亦然 但余未之目見也 昔少陵李公云 乾隆丙子間 吾始見此人 亦如四五十 總計前後已踰百年父矣 紫髯豈理耶 外史氏曰 道家以清心寡慾爲飛昇之本 乃曹神仙多慾 猶能不老如此豈世降俗淪神仙猶不能免俗耶。」

에는 분명히 모순이 생긴다. 또한 이 경우 우리는 茶山이 교화론자였음도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런데 다같은 문학의 양식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교화, 계몽시키는 데는 운문보다 산문이 효과적이다. 운문은 문자 그대로 운을 맞추고 율격의 제약에 의식해야 한다. 그러나 산문은 그런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리하여 교화, 계몽의 기능으로 볼 때 운문은 산문의 비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茶山은 운문으로 이루어지는 詩를 옹호하고 소설을 부정, 배제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그가 내세운 소설 배제론이 논리상의 난점을 지닌 쪽임을 알 수 있다.

2. 種族 또는 傳統에 대한 인식

茶山의 문학관 가운데는 종족의식을 수반시킨 것이 있다. 본래 保守士林들은 한학과 한문의 숭배자들이었다. 그들은 작품의 표현매체를 한자로 삼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이 典範으로 삼은 글은 韓退之, 柳宗元, 李太白, 杜甫의 것이기가 일쑤였다. 아울러 保守士林들의 작품 제작은 이상 중국 문인들을 모방하는 것과 동의어에 속했다. 茶山은 그 이전의 이와 같은 추세와 180°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에게 작품이란 우리의 사상 감정을 우리 나름의 형태에 담는 것을 뜻했다.

늙은 사람 한가지 즐거운 일은
붓가는 대로 마음껏 써버리든 일

어려운 운자에 마음 안쓰고
고치고 다듬느라 늦지도 않네

흥이 나면 당장에 뜻을 읊기고
뜻이 되면 곧바로 그걸 적는다.

내사 본래가 조선 사람
즐거서 조선의 시를 쓰리라

그대들은 그대들 법 따르면 될 뿐
누구라 이렇저렇 말을 만드나.

(老人一快事 從筆寫狂詞

競病不必拘 推敲不必遲

興到即運意 意到即寫之

我是朝鮮人 甘作朝鮮詩

卿當用卿法 透哉議者誰)⁽²²⁾

(22) 《與》一, 六, 34.

여기서 詩란 물론 漢詩를 가리킨다. 우리가 한문을 수용해서 그것으로 작품을 쓰기 시작한 역사는 대체로 삼국시대부터인 것 같다. 그리고 그 후 우리 주변에도 다수의 우수한 漢詩文의 제작자가 배출되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漢詩文의 관습적 형태, 양식을 추종한 쪽이다. 바꾸어 말하면 원천에 해당되는 중국측의 관습, 격식, 어투에 맞추는 입장에서 작품을 썼다. 그걸 茶山은 극복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가 시도한 것은 우리에게 알맞는 우리의 詩였다. 종족 내지 우리 역사에 대한 茶山의 의식은 여기에서 아주 각명하게 들어난다. 뿐만 아니라 茶山은 우리 시와 우리 글을 이루어 가는 방책도 생각한 분이다. 우선 그는 훌륭한 글을 짓는 지름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글을 읽고 익히는 것으로 열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또한 그런 일에 맹목인 우리 주변의 풍조에 대해 개탄하여 말지 않았다.

수십년래에 한가지 의론이 있다. 덮어놓고 우리나라의 문학을 배척하는 일이다. 무릇 앞서 나온 문집들에는 눈길도 던지지 않을 정도이니 이것은 큰 두통거리가 아닐 수 없다. 사대부집 집안의 자제들이 우리나라의 고사를 알지 못하고, 선배들의 의론을 읽지 않았다면 비록 그 학문이 예와 이제를 꿰어 뚫었다고 하더라도 무엇에 쓸 것인가. (數十年來 怪有一種議論 盛斥東方文學 凡先獻文集 至不欲寓目 此大病痛 士大夫子弟 不識國朝故事 不見先輩議論 雖其學貫穿今古 自是鹵莽)⁽²³⁾

여기 나타나는 바와 같이 茶山은 좋은 글, 훌륭한 글을 남기기 위해 우리 글을 읽고 우리 역사를 익혀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말의 바닥에는 분명히 중국 글과 중국의 격식을 따르는 일이 부질없다는 생각도 깔려 있는 성보인다. 다른 글에서 그의 이런 생각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거기서 그는 우리 선인들이 쓴 책 이름을 들었다. 그리고 아울러 그는 거기서 우리 자신에 대해 알고 익혀야 할 필요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는 詩를 짓되 用事에 힘써 보아라.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걸핏하면 중국 것을 즐겨 쓴다. 이 역시 비루한 文風이다. 마땅히 三國史記, 高麗史나 國朝寶鑑, 輿地勝覽, 懲愆錄, 燃黎室記述과 기타 우리나라 글에서 여러가지 사실을 뽑아서 쓰고 그 지방을 상고해서 써야 한다. 그래야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후세에까지 전할 수 있는 것이다. (此後所作 須以用事爲主 雖然我邦之人 動用中國之事 亦是陋品 須取三國史 高麗史 國朝寶鑑 輿地勝覽 懲愆錄 燃黎述 乃他東方文字 採其實事 考其地方 入於詩用 然後方可以名世以傳後)⁽²⁴⁾

(23) 寄二兒, 壬戌十二月二十二日 康津謫中, 《與》一, 二十一, 4.

(24) 答二兒, 丙子六月初四日, 《與》一, 二十一, 9-10.

종족의식을 바탕으로 한 茶山의 이와 같은 문학관에도 물론 한계가 없는 바는 아니다. 우선 그는 조선시가 조선의 격조와 우리 자신의 사상 감정, 인정, 습속을 담아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 효과적인 표현이 漢文에서 벗어나 우리말과 우리 글을 씀으로써 가능해진다는 사실에는 맹목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西浦처럼 松江이 지은 우리말 詩를 추거하지 않았다. 또한 그 스스로 한편의 우리말 詩도 제작한 바 없는 것이다. 동시에 그가 품은 種族認識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본래 종족의식 내지 주체사상은 그 나름대로 합리 타당한 논거를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논거를 마련하지 않은 종족의식은 맹목적인 혈연론에 떨어지기 쉽다. 혈연론은 대개 막연한 감정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10중 8,9가 근거 없는 우성론을 수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茶山은 實事求是의 기치를 내건 학자답게 여기서도 그 나름의 논거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이 反尊明 내지 反華夷思想이었다. 여기서 문제되는 尊明 내지 華夷思想이란 中華思想에 해당된다. 그리고 中華思想이란 역사와 문화의 중심 내지 원류, 정통을 漢民族과 그 생활 터전을 이룬 中原에 있다고 믿는다. 茶山은 당시 집권층과 보수 사립 사이에 널리 퍼진 이와 같은 생각을 크게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중화와 오랑캐가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구별은 정치형태, 풍속, 교양, 문화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는 지리적인 조건만을 문제 삼는 경우 당연히 北魏와 女眞, 契丹 등은 오랑캐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 민족은 윤리, 도덕면에서 보아 아주 우수하다. 그리하여 茶山은 당연히 이들이 中國으로 호칭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⁵⁾ 그리고 이와 아울러 그는 우리 민족이 우수한 종족이라고 못박았다. 그가, 스스로 東夷族임을 자랑스럽다고 선언하고 나아가 朝鮮詩를 쓰겠다고 나선 행동철학은 바로 여기에 그 바탕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우수성을 정당화시킨 논거 자체가 문제였다. 茶山이 여기서 내세운 우수성은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본 우수성이었다. 그리고 그것도 유교를 신봉하는 정도로 그 평가가 좌우되었다. 이것은 그가 지향하는 학문의 성격과는 맞지 않은 관념론이었다. 그의 문학관이 지닌 한계는 여기에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25) 여기서 먼저 茶山은 北魏와 女眞, 東夷가 어질고 착한 점이 있다고 몇몇 사실을 들었다. 그리고는 이어 다음과 같이 적었다. 「史稱東夷爲仁善 眞有以哉 況朝鮮處正東之地 故其俗好禮而賤武寧弱而不暴君子之邦也 嗟乎旣不能生乎中國 其唯東夷哉」——東胡論, 《與》一, 十二, 8.

四. 茶山文學의 實際

행장을 보면 茶山은 그 생애의 대부분을 가난과 박해 속에서 보냈다. 그러나 어떻든 그는 조선왕조의 지배계층에 해당되는 士林 출신이었다. 이때 士林 또는 士族이 農工商에 종사하는 서민과는 다른 계층임은 널리 알려진 대로다. 단적으로 말해서 農工商業에 종사하는 서민계층들은 士族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층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현실적으로 서민들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았다. 그들이 힘쓸 것은 스스로를 갈고 닦는 일이었다. 그게 이루어지면 벼슬길에 올라서 제 나름의 지식과 경륜을 펴고자 했다. 그리고 그 틈틈이 吟風咏月을 즐겼다. 그들이 통념으로 하는 문학이란 그걸 표현한 글을 뜻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같은 士林出身인데도 茶山의 작품들은 어느 경우와 다른 단면을 드러낸다.

1. 庶民의 편에 선 文學

茶山의 많은 작품은 吟風咏月과 대척되는 입장에서 쓰여졌다. 그는 대개 서민의 세계를 작품의 제재로 택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서민의 비참한 생활상이 수용, 반영되었다. 다음은 그 가운데서 한 보기가 되는 경우다.

시냇가의 헌 집 한 채 푹배기 같고
북풍에 이영 걸혀 서까래만 앙상하다

목은 재에 눈이 덮여 부엌은 차디 차고
채 눈인양 뚫린 벽에 별이 보이네

방안 있는 건 쓰잘데 없는 거
모두 팔아 치워야 7,8푼일까

개 꼬리 같은 조이삭 세 줄기와
비틀어져 닭창자같은 고추 한 켤미

깨어진 항아리 새는 곳은 형겅으로 때웠으며
주저 앉은 선반대는 새끼줄로 엮었다.

(臨溪破屋如堯鉢 北風捲茅檜齷齷
舊灰和雪籠口冷 壞壁透星篩眠谿
室中所有太蕭條 變賣不抵錢七八
龍尾三條山栗穎 鷄心一串番椒辣

破甕布糊斂穿漏 度架索縛防墜脫)

——奉旨廉察到積城村舍作⁽²⁶⁾

그 제목으로 짐작되는 바와 같이 이 작품은 茶山이 암행어사로 지방 민정을 살피는 가운데 실제 보고 느낀 것을 제재로 삼은 것이다. 이때 茶山은 그 스스로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득의로운 때였다. 그럼에도 그는 서민의 궁핍한 생활상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했다. 미루어 우리는 그의 문학이 지니는 바 서민을 향한 정신적 경사를 짐작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이 작품을 쓰고나서 얼마 뒤 茶山은 신산하기 그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그에게 지극한 은총을 베푼 正祖가 승하하자 몰아닥친 사태였다. 正祖가 승하하자 茶山은 곧 반대당에 물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경상도와 전라도 남쪽 등 궁벽한 산골과 바닷가로 내쳐지는 流配生活이 시작되었다. 이 불우한 나날을 그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하층, 세궁민 속에서 보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나라의 죄인으로 몰려 귀양살이를 하는 고초속에서 살았다. 자연 그의 작품에는 그런 체험이 담긴 게 나타났다.

다복썩을 캐네, 다복썩을 캐네

캐다가 보면 들썩도 나오고

캐다가 보면 뺑썩도 나오고

캐다가 보면 또 다복썩이네

흰 썩이랑 푸른 썩이랑

미라니 어린 썩까지

모두 캐도 모자라는데

풀라서 썩 수 있나

걸어내고 부여잡아

바구니에 쓸어담고

돌아와서 죽을 썩니

아귀다툼 벌어지네

아우 동생 서로 뺏어

온 집안이 떠나갈 듯

소리치고 꾸짖기가

울빼미요 부엌이네

(采蒿采蒿 或得其蕭)

(26) 《與》一, 二, 11.

或得其廩 或得其蒿
 方潰由胡 馬新之苗
 曾是不擇 曾是不饒
 擥之擥之 于笱于笱
 歸焉鬻之 爲饒爲饒
 兄弟相擥 滿室其鬻
 胥怨胥鬻 如鷗如鷗

——采蒿 3章⁽²⁷⁾

이 작품은 〈田園紀事〉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이 작품 허두에 놓인 茶山 스스로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쓰인 해는 己巳년이라고 한다. 서력으로 치면 1809년에 해당된다. 이때 남녘에는 큰 가뭄이 들었다. 그리하여 들에는 풀 한 포기 보이지 않고 유월 초에는 유리결식에 나선 사람들이 길을 메웠다고 한다. 이 참상을 눈앞에 놓고 보면서도 茶山은 스스로 죄를 얻어 귀양살이를 하는 몸이라 조정에 사정을 알리는 글 한장을 바칠 길이 없었다. 「오매초를 조정에 바치려 해도 방도가 없었고 백성들의 유리결식한 모습도 전할 길이 없었다. (烏昧之奏 無階 銀台之圖 莫獻)」⁽²⁸⁾ 그러나 비참한 백성들의 생활을 본 茶山의 마음은 아프기 그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스스로를 차디찬 풀밭에서 구슬픈 노래를 부르는 쓰르라미 또는 귀뚜라미에 비유했다. 여기서 쓰르라미나 귀뚜라미의 비유는 물론 그가 겪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 나라의 죄인이라고 해도 그는 언젠가 伸寃이 될 몸이었다. 그런 이상 백성의 참상을 외면하는 일도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굶주림 속에서 해매는 서민들과 그 감정을 완전히 같이하는 詩를 지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세계가 서민에 밀착된 茶山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2. 非理의 摘發, 暴露, 告發의 文學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선다는 것은 무턱대고 동정을 뜻하지 않는다. 그에 앞

(27) 《與》一, 五, 36.

(28) 이 작품 제목인 采蒿부터가 굶주린 백성의 생활을 말한다. 그것을 茶山은 「采蒿閔荒也 未秋而饑野無青草 婦人采蒿 爲鬻以當食焉」이라고 밝혀 놓았다. 또한 〈田園紀事〉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있다. 「己巳歲 余在茶山草庵 是歲大旱 爰自冬春 至于立秋 赤地千里 野無青草 六月之初 流民塞路 傷心慘目 如不欲生 顧負罪竄伏 未齒人類 烏昧之奏 無階 銀臺之圖 莫獻 時記所見 綴爲 詩歌 蓋與寒蠶冷蠶 共作草間之哀鳴 要其性情之正 不失天地之和氣 久而成編 名之曰田園紀事」《與》一, 五, 36.

서 우선 우리는 그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현실의 직시란 우리의 눈길이 피상적으로 사물을 밝히는 것 이상이 되기를 요구한다. 그 내부를 파헤치고 사태를 검토, 분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제대로 그 뜻이 파악되지 않는 게 인간의 생활이며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茶山의 文學이 바로 그와 같은 단면을 드러낸다. 앞에서 이미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서민에게 그지없는 동정심을 지닌 나머지 바로 서민의 입장에서 작품을 썼다. 그리고는 나아가 그 원인을 파헤치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서민의 궁핍상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茶山은 곧 한 가지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것이 참담한 서민들의 생활을 빚어낸 원인의 간파였다. 茶山은 그것이 정치의 부패, 이속배들의 간통, 사회의 전반에 걸친 비리와 부정에 말미암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그 무렵 우리 주변의 행정관료와 이속배들이 범하는 부정, 부패와 비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었다. 茶山은 감연하게 그것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은 앞에 보인 〈積城村詩〉의 계속 부분이다.

구리수저는 벌써 里正에게 빼앗기고
무쇠솥은 옆집 부자 밑돈 대신 가져 갔네
때묻은 무명 이불 오직 한 채 뿐이라서
부부유별 애당초 가담치 않네

어린 것 누덕웃은 어깨 팔이 다 나왔고
바지나 바선은 애당초 못 걸쳤다.

큰 아이 다섯살에 騎兵으로 등록되고
세 살난 작은 놈은 軍籍에 올라 있어

두아들 세금으로 오백푼을 물고 나니
제발 죽기 소원인데 옷이 다 무엇이랴

(銅匙舊遭里正攘 鐵鍋新被鄰豪奪
青綿敝衾只一領 夫婦有別論非達
兒穉穿襦露肩肘 生來不著袴與襪
大兒五歲騎兵簽 小兒三歲軍官括
兩兒歲貢錢五百 願渠速死況衣褐)⁽²⁹⁾

여기서 茶山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다. 서민들은 우선 이속배와 토호들에게 사적으로 수탈 당한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얹힌 데 덮친 격으로 나

(29) 《與》一, 二, 11.

라의 부역, 병역 의무, 세금 등의 명목에 의해 가렴주구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들의 생 자체를 저주해 말지 않았다(願渠速死況衣褐). 여기서 우리는 非理와 부정, 부패에 대한 茶山의 비판, 공격이 매우 날카로움을 보게 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는 <龍山吏>도 있다.

아전들 용산마을 들이 닥쳐서
 소를 뒤져 관리에게 넘겨 주는데
 소를 몰아 저멀리 사라지는 걸
 집집마다 문에 기대 보고 있다네
 관장의 노여움 막기 기쁘니
 그 누가 백성 고통 알아 줄 것가
 유월달에 쌀을 찾아 바치라 하니
 몹쓸 고통 수자리가 되려 낫겠네
 좋은 소식 기다려도 오지를 앓고
 만 사람들 서로 베고 죽을 판이네
 구차하게 살자니. 굶은 일뿐
 죽은 자의 팔자 되려 편하네
 아낙은 있으나 남편 없으니
 늙은이는 아들도 손자도 없고
 빼앗긴 소 바라보니 샘솟는 눈물
 눈물은 흘러서 적삼 적시네
 촌구석 사는 풀 이리 굶은데
 아전은 자리를 왜 뜨지 않나
 쌀뒤주 바닥도 난지 오랜데
 무슨 수로 저녁을 짓는단 말가
 그대로 앉아서 굶어 죽으니
 이웃들 모두가 목이 메이네
 소를 잡아 포며서 세도집에 바치면
 아전들 출세길은 틀림 없다네.
 (吏打龍山村 搜牛付官人
 驅牛遠遠去 家家倚門看
 勉塞官長怒 誰知細民苦
 六月索稻米 毒痛甚征戍
 德音竟不至 萬命相枕死

窮生儘可哀 死者寧嚮矣
 婦寡無良人 翁老無兒孫
 泫然望牛泣 淚落沾衣裾
 村色劇疲衰 吏坐胡不歸
 瓶甕久已罄 何能有夕炊
 坐令生理絕 四隣同嗚咽
 脯牛歸朱門 才謂以甄別)⁽³⁰⁾

이 작품은 茶山이 스스로 밝히기를 杜甫의 운을 댄다고 했다. 여기서 문제될 杜甫의 작품은 물론 <石壕吏>가 되겠다. 杜甫의 경우처럼 그 역시 지방 행정관리들의 가렴주구와 포악한 토색질을 고발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있다.

새로 심는 호박에 떡잎 두엇 살찌더니
 밤사이 뻗은 명쿨 사립문에 얽혔어라
 평생에 못심을 건 맛좋은 수박이라
 官奴들 몰려와서 시비걸까 걱정이네
 (新吐南瓜兩葉肥 夜來抽蔓絡柴扉
 平生不種西瓜子 剛怕官奴惹是非)
 —長鬢農歌 4章⁽³¹⁾

눈결인양 고운 무명 새로 짜서 내었더니
 吏房 즐 돈이라고 黃頭가 뺏어 가네
 누전 세금 또 내라고 성화 같이 독촉하니
 삼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남이라
 (棉布新治雪樣鮮 黃頭來博吏房錢
 漏田督稅如星火 三月中旬道發船)
 —耽津村謠 7章⁽³²⁾

그 제목으로도 짐작되는 바와 같이 長鬢農歌는 경상도에 소재하는 농촌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耽津은 그와 달라서 전라도의 어촌이 무대가 되어 있다. 참고로 밝히면 耽津은 지금의 康津을 가리킨다. 이들 지방은 모두가 茶山이 귀양을 산 곳이다. 그리고 앞에 보인 경우와 꼭 같이 이들 작품 역시 지방관원과 이속들의 비리에 허덕이는 서민의 참상을 다룬 것이다. 실제 <耽津村謠> 중에는 茶山이 붙인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민전으로 국가

(30) 《與》一, 五, 38-39.

(31) 《與》一, 四, 18.

(32) 《與》一, 四, 26.

의 토지대장에 빠진 것이 600여결이나 된다. 이것은 재결로 거짓 보고한 것이니 국가의 손해가 얼마나 크겠는가. (民田之漏於王籍者 六百餘結 其僞災稱是公室之賦幾何)」 이것으로 미루어도 우리는 茶山이 쓴 작품들의 告發文學의 性格을 넉넉히 읽을 수 있다.

한편 계속되는 茶山의 비리, 부정, 부패에 대한 고발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수반시키는 일이었다. 그가 쓴 대부분의 작품은 유배자의 신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그가 봉건체제하의 지방 관원과 같이 생사여탈의 권한을 가진 부사, 현령과 그 앞잡이인 이속들을 비난, 공격한다는 것은 맨주먹으로 완전무장한 상대와 맞서 싸우는 꼴에 다를 바가 없었다. 비록 지방 관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거개가 그 끈이 중앙의 권문세가에 닿아 있었다. 바로 그들의 비리와 부정 자체가 그들의 비호, 사주 아래서 이루어진 사례도 결코 드물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일개 유배인에 지나지 않는 茶山이 되무리 그걸 폭로한다면 그에 부수될 사태도 뻔했다. 물리적인 힘이 그를 침묵시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는 말이다. 茶山도 이와 같은 사실에 전혀 맹목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그는 얼마간의 작품에서 간접적인 화법을 쓰거나 풍자, 우의의 기법을 도입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에는 〈古詩 27수〉를 비롯하여 〈蟲食松〉, 〈憎蚊〉 등이 있다.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 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없는 시름을 하소하는 듯
느릅과 해나무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나?
제비 다시 지저귀며
사람에게 말하듯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적고
해나무 구멍은 뱀이 찾아요
(鷺子初來時 喃喃語不休
語意雖未明 似訴無家愁
榆槐老多穴 何不此淹留
燕子復喃喃 似與人語酬
榆穴鷺來啄 槐穴蛇來搜⁽³³⁾)

(33) 《與》一, 四, 10.

얼핏 보아도 짐작되는 바와 같이 여기서 제비는 힘없고 꺾박을 받는 날짐승이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茶山이 항상 그들 편에 서고자 한 서민들을 표상한다. 그에 대해서 황새나 뱀은 제비를 침해, 노략질을 일삼는 자들이다. 이들이 탐관오리와 이속배를 표상하고 있음은 새삼스러운 군말이 필요치 않다. 결국 茶山이 쓴 것은 우의에 속하는 화법이다. 그러나 그 바닥에는 벼슬아치의 부정과 비리를 비판한 마음의 칼날이 깔려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茶山이 그 작품에 풍자의 기법을 사용했음을 보게 된다. 한편 이 모든 단면은 茶山이 지닌 정신적 지향 또는 철학의 당연한 歸結과 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그가 즐기치게 추구한 것은 우리 사회의 병폐를 일소하는 일이었고 그를 통해 도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건지는 일이었다. 그에게 문학은 그 방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하여 茶山의 문학은 마땅히 이런 차원에서 이해,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